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6226.05	↑ 코스닥	1162.97
	(+134.66)		(+10.54)
↑ 금리 (연율)	3.340	↑ 환율 (원/달러)	1474.40
	(+0.012)		(+0.20)

대응·극복을 위한  
힘 원내대표 긴급  
“비축유 확대 등  
여야, 초당적 협력”  
중동상황 긴급회의  
02

## 칩 가격 50% 인상... 반도체 상승사이클 승부수

삼성전자, 가격 협상력 확보  
4나노 등 주요생산라인 풀가동  
파운드리 수익성 개선 흐름 예상  
평택 P4라인 장비발주 착수  
수요 확대에 발빠른 투자 확대

D램 가격이 급등세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HBM4 로직 다이 가격까지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가격 상승 흐름이 메모리를 넘어 비메모리 영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는 수요 확대와 맞물려 투자 역시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으로 생산되는 HBM4용 로직다이 가격을 올들어 기존 대비 약 40~50%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직다이는 HBM4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이다. 삼성전자는 HBM4 출하 확대와 맞물려 로직다이 수요도 함께 증가해 가격 협상력을 확보한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삼성전자의 4나노 등 주요 생산라인이 사실상 풀가동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파운드리부문의 전반적인 수익성도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4면>

삼성전자는 D램 가격 또한 올해 2분기 인상을 단행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앞서 1분기 큰 폭의 가격 인상에 이어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평균 약 30% 인상된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세월호 12주기 기억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스1

전해졌다. 이러한 가격 상승세는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만 TSMC 역시 올해 5나노 이하 전 공정에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요 증가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4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금리 동결, 현 상황에 부합 인플레이 오면 통화정책 변화”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청문회 “금리 7연속 동결, 전략적 인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사진)가 “지금 금리는 맞지만, 물가의 성격이 바뀌면 움직이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현 금리 수준은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중동발 충격이 기대인플레이와 근원물가의 2차 파급으로 번질 경우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후보자는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물가 상방압력이 커지는 반면 성장세는 당초 전망보다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총재로 임명되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청문회는 그 원칙을 보다 구체적인 정책 언어로 표현한 자리였다.

◆ ‘동결 유지’ 아니라 ‘전략적 인쇄’ 신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연 2.50%) 동결 결정에 대해 “현 상황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7회 연속 동결을 두고도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수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전략적 인쇄”라고 규정했다.

새 총재 후보자가 출범 전부터 최근 한은의 정책 판단을 큰 틀에서 수용했다는 뜻으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노선 전환보다 연속성에 방점이 찍혔다.

실제 한은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중동전쟁 여파로 물가의 상방압력과 성장의 하방압력이 함께 커지고 있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사태의 추이와 파급영향을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당시 금통위 판단이었다.

신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은 현(現) 이창용 한은 총재 체제의 최근 결정을 뒤집기보다, 동결의 의미를 ‘관망’이 아닌 ‘판단’으로 재해석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신 후보자 지명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출신 국제금융 전문가라는 이력에 주목해 통화정책 톤의 변화 가능성이 주시했지만, 청문회에서 확인된 1차 메시지는 ‘현 수준 금리 유지’에 가까웠다. 다만 이는 무조건적인 동결 지지라기보다,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서는 선풍리 방향을 정하지 않겠다는 신중론에 가깝다는 점에서의 미가 있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

##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제조주권 확보”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위기, 기회 만드는 역량·의지 필요”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6일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제조산업 주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자유무역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돼 글로벌 산업 무역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제조업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방의 제조역량 혁신,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의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사후 브리핑에 따르면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K-산업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정청래 “세월호 참사, 결코 지난날 아픔 아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약속” /사진 뉴스1  
▲“李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심사 종료... 수감차고 청사나와

▲“김부겸 지지” 홍준표 “그래도 대구는...선거 알 수 없다”  
▲與 “장동혁 방미, 사진 몇 장 남기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

▲이준석 “통일교 의혹 후보 공천한 뻔뻔한 與, 부산이 용납해야 하나”  
▲이원석 “대장동 수사, 文 정부 잔여 사건... 尹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社告**

###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② 영상 촬영 및 편집(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①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영상제작 및 편집 평가)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② 모집인원: 00명  
③ 응시자격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메트로빌딩)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① 일시: 2026년 5월 13(수) 10시 ~ 16시 40분  
② 장소: 추후 통지  
③ 내용: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기사 작성 또는 영상제작물을 제작해 제출  
■ 1차 실무면접  
①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② 일자: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③ 장소: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④ 기타: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① 대상: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2면에 계속>

metro